

민주당 일색...지방의원들 연일 구설수

해외연수 퇴짜·폭력사태·'황제 독감주사' 갑질 등

일당 독주에 견제·감시 기능 상실... '밥그릇 챙기기' 지적도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 일부 의원들의 부실한 의정활동, 의원 간 폭력사태, 갑질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방의회 대부분이 민주당 중심 일방 통행으로 운영되다보니 같은 당 의원끼리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기류가 흐르면서 감시와 견제는 커녕,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 민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보다는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광주·전남 현안에 대한 해법과 정책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 처리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라는 취지로 '씩씩이' 식 지지를 보내준 호남 민심을 제대로 파

악, 자기 책임성을 갖고 지역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4박 6일 간의 태국 해외 연수 일정을 제출했다가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퇴짜'를 맞았다.

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6명이 제출한 연수계획서가 공식 일정 없이 현지 문화탐방 형태의 관광성으로 짜여진데다, 완도수목원 조성과 순천만국가정원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로 선택한 태국 왕실정원, 화훼공원 등 대상지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의원들은 특히 최근 '도의회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도 조례에 명시된 '45일 전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규정을 무시하는가 하면, 사전학습 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6명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해당 상임위 소속 유일한 타당 소속인 정의당 의원은 애초 불참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결국 별다른 견제 없이 그들끼리 담합하는 구조에 따라 이뤄진 '퇴행적 행태'라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국성군의회에서 최근 '돈 봉투' 행방을 놓고 벌어진 여성의원 2명의 몸싸움도 몇 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당직자 책상에 놓고 온 돈 봉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 중 한 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최근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목포시 의원들의 '황제 독감주사' 사태도 집행부를 감시해야할 의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잊고 보건소 직원을 불러 독감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의원들이 강하게 부인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보건소 직원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중이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광주에서 두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해외연수 규칙을 무시하고 호주 연수에 나섰다가 민주당 시당의 경고를 받았고, 북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관광성 일정만 소화한 '가짜 출장'으로 물의를 빚으며 당원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축산 ICT 융·복합사업 140억원 지원

국비 42억...다음달 5일까지 신청

전남도는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축사에 접목시키는 사업을 실시한다. 축사 환경 관리에 대한 원격 제어만이 아니라 경영·출하 관리 등 전반에 대해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28일 "2020년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비 140억원 가운데 국비 42억원을 확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조건은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다. 융자의 경우 금리 2%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취급기관은 농협은행이다.

전남도는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해 12월 5일까지 1차 예비 사업자를 각 시·군을 통해 신청받고, 전남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대상자를 내년 1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대상은 현대화된 시설이 갖춰진 축사 또는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축사시설 구축이

예정돼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 주관기관(시장·군수)이 판단한 농업경영체다.

지원 축종은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우유),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 양봉 등이다. 지원 자금은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사용할 수 있다. 환경관리기, CCTV 등 단일장비만 도입해 단순히 활용하는 일반형과, 장비의 종류를 두 가지 이상 도입하거나 로봇 착유기처럼 단일 장비이긴 하나 해당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 등에 활용하는 전문형으로 나눠 지원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자동화 시설을 활용할 경우 개체정보, 개체별 건강상태, 축사 환경정보 등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료 급여량과 노동력을 줄이면서 효과적 사양관리,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해 송아지 폐사율과 젖소 도태율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다음달 2일부터

민관 합동 특별 위생점검

광주시는 외식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패밀리레스토랑, 한정식전문점 등 일반 음식점과 시민들의 소비가 높아지는 빵류(케이크류), 초콜릿류 등 다소비스품 제조·판매업소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은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5개반 24명)이 한다. 일반음식점 216곳, 제과점 50곳, 식품제조업체 16곳, 기타 식품판매업소 17곳 등 모두 299곳이 점검 대상이다.

아간 주류 취급업소 말집지역에 대해서는 아간점검도 한다. 구시청, 상무지구, 진월동, 노대동, 용봉지구, 수완지구, 첨단지구 등을 위주로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타이벡(Tyvek)’ 전시회

문화원과 조선대 협업으로 진행 되었으며

일상에서 쓰다 버린 폐현수막 소재인 ‘타이벡(Tyvek)’을 이용한 전시회가 2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아시아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의회 ‘인공지능 예산’ 제동

구체성 없고 제대로 검증 안돼

AI 사관학교 설립 80억 보류

광주시 역점사업인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업 구체성이 없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광주시는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 2020~2023년 매년 20억원씩 80억원을 출연,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인공지능 사관학교 설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1년간 기본·심화 과정, 해외 연수 등을 거쳐 전문 인력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시의회는 시의 사업 계획에 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획안에 교육 기관·주체, 운영 내용 등 구

체적인 내용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내년 초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열어 교육생 모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차질을 빚게 된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 동의안 처리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시의 인공지능 사업 전반에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현미경 심사'가 필

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예산(56억원)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따져볼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51억원,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구축 3억원,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2억원 등 인공지능 예산을 편성했다.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만 확보하고 보겠다는데 그 적절성을 따져 보려는 것이다"며 "광주시 인공지능 사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집적단지 조성 외에는 홍보 사업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친환경차 2순환도로 통행료 50% 감면 1년 연장

광주시는 제 2순환도로 친환경차량 통행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량 통행료 감면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요금 차액분(연간 1억5000만원 추정)은 광주시가 업체에 지원한다.

감면대상 차량은 사용빈도 2주소가 광주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연료전지·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배기량

1600cc 미만이다. 대상 차량 소유주는 광주 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 카드를 발급받아 요금소에서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앞서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2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MODERN

사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